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제2장 성찰과 신뢰관계가 우선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언영색이라는 말 아시죠? 즉, 말을 교묘하게 하고 그다음에 얼굴색을 꾸민다라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가식과 위선 그리고 말재주나 비위를 맞추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 보면 어떨까요?

공자는 이런 사람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 인간의 내면에 충실하기보다는 외양을 꾸미는 것이 결국은 공자가 가장

핵심으로 삼는 인, 우리는 어질 인 자. 인을 해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는 그 말 자체의 의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교언영색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신뢰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단어죠. 논어에 보면 민무신불립,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군주는 설 자리가 없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결국은 교언영색, 말이나 번지르르하게 하고 얼굴색이나 꾸미는 이런 사람이나 가식적인 사람이 아닌

진정한 내면에서 나온 즉, 품수를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자는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향당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구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어떨까요? 공자가 있었던 그 당시는 말이 중요했을까요? 사람이 중요했을까요? 오늘이야 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말의 값어치가 특히 이제 명마 같은 경우는 대단했죠. 사람보다 말이 얼마나 더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구간에 불이 났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말이 다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사람이

다쳤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다음에 불문마,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자가

생각할 때 물질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것보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왜? 그 사람이 신뢰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교언영색이라고 지칭하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알랑거리는 이런 인간의 내면보다는 외양을 중시하는 사람은

확실히 비판했고 이것은 공자가 군자상으로 제시한 게 있죠. 문질빈빈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문질빈빈, 어찌 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문, 이 문이라는 것은 걸으로 드러난 수식입니다. 꾸밈, 그다음에 질은 바탕 질 자죠. 내용, 그래서 꾸밈과

내용이 같이 빛날 빈 자입니다. 저거는 빛나고 빛나야 된다는 의미인데 교언영색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는 것은

떨까요? 바로 문질에서 문만 나타나고 질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는 신뢰의 문제는 질이

우선시되는 바탕이 우선시되는 그런 관계고 바탕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문이 나중에 되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저 지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춘추시대 때는 뭐 전국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패권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유세도 했고 그 당시 많은 사상가들, 많은 유세자들이 제후, 왕한테

정말 교언영색의 과정을 통해서 왕한테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했죠. 얼마나 비굴함과 여러 가지가 싹뻗었습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 아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이것을 바로 공자는 싫어했던 겁니다. 논어의 학이편에

보면 삼성오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세 번 내 자신을 반성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공자의 말로 기억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사실 이 말은 공자의 말이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말이죠.

증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도모하는데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진심을 나타나는 충 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벗들과 사귀면서 믿음이 없었는가? 하면서 신 자가 들어가고요. 전수 받은 것 즉, 스승에게서 전수 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하는 습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가지, 3번 반성하는 이 사안에서 충과 신과 습을 얘기하는데

충과 신이 사실은 같은 유형이죠. 충은 충심, 진심을 얘기하고, 신은 믿음,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인과 또는 친구들과 뭐 친구나 타인이나 다 마찬가지죠. 위인과 봉우, 벗들과 다 마찬가지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충과 신이요. 그래서 증자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효성이

대단히 지극했고 그다음에 증자의 그 당시 말 한마디는 곧바로 신뢰의 대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공자보다 무려

나이는 46살이나 어렸지만 공자가 대단히 증자에 대해서는 아주 신뢰를 했죠. 그 당시에 공문의 10명의 제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훌륭한 제자들을 공문십철이라고 하거든요. 공자의 문하의 열 십 자, 철, 철은 밝을 철 자 써서 철인들. 그런데

거기에는 옛날에는 증자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증자는 해동공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증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평가가

많습니다. 바로 그 증자의 말, 그러나 사실은 공자보다 나이가 46살이나 어린 걸 보면 증자가 꼭 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스승 공자께서 한 말을

증자께서 이걸 늘 읊고 다녔을 거고 그것을 이제 논어를

기록한 제자들이 아마도 스승 증자의 말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공자는 천승지국 즉, 제후국을 이끌어갈 때도 일을 경건하게 처리하고 믿음 있게 하는 거, 경건과

믿음을 또 내세웠죠. 이것도 또 신되죠. 교언영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학이편에서 보면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심과 신의를 주로 하고 바로

주충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충심과 신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자의 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맞죠?

증자도 충, 신을 얘기했던 거. 삼성오신에서 그러고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군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그리고 중요한

항목으로써 충과 신을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군자의 진중함과 그다음에

군자의 그런 자세는 학문의 깊이와 견고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공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할 때 제자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집을

떠나서는 우애롭고 그다음에 삼가고 믿음이 있으면 근이신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이신 즉, 삼감과 믿음. 그래서

어쨌든 효도를 하고 우애를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근과 신이다. 결국 이런 것들은 공자가 또 학이편에서 한 말이

뭐냐면 여붕우교언이유신, 친구와 사귄 때는 말의 믿음이 있어야. 즉, 언이유신, 말을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교언영색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비록 그가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움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사실은

붕우유신입니다. 벗, 친구를 사귄 때 친구 사이에는 유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군주와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믿음의 중요성을 최고의 가치에 둔 공자의 의도가 분명히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죠. 또 특히 아까 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무신불립 이거 같은 경우도요. 정치에 관심

있었던 자공이 물어봤죠. 선생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공자가 딱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식량을 충족시키는 것. 두 번째는 병기를 충분히 해라. 세 번째는 백성들이 군주를 믿게 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족식족병 민신지의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자공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죠.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릴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먼저 병기를 버려라! 그랬더니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뭐니까?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식량을 버려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냐고 또 자공이 여쭙보니까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민무신불립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정치의 기반도

백성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공자는 분명히 얘기했죠. 요즘처럼 꿈수가 난무하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생각할 여지를 주는

말이 아닐까요?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분명히 공자는 교언영색을 싫어했구요. 충심과 믿음, 신의를 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어나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충심과 신의,

특히 신뢰 문제는 인간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축이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남들과 교류할 때 그 신의라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향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 너무 지나치게 사탕발림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진중하고 그다음에 겸허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겸허하면서도

타인과 공존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